

고등학생의 음주문제행동과 성격특성*

조원정** · 권인숙*** · 김광숙**** · 서구민****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학령기의 바른 건강습관 및 지식의 습득은 성인기의 건강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평생의 건강관리에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기에 흔히 볼 수 있는 건강문제 중 청소년 자신이나 가족 및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청소년 비행 및 약물남용(특히, 음주)문제이다(Choi, 1997). 특히 음주문제는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과 연관된 문제행위는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발달기적 맥락에서 청소년 음주는 그들이 도움을 청하는 하나의 상징적 행동으로서 현재와 미래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삶의 질을 위협하는 건강위협 행위로 이해되어지고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Jung, 1999).

최근 술의 대중화는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쳐서 중학교 학생의 43.4%,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43.4%,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84.4%가 음주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Yoon, 1998) 청소년의 음주문제가 점차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체 청소년의 평생 음주 경험율은 71.8%, 지난 1년 동안의 음주 경험율도 51.2%로 높고, 연도별 음주 경험율도 증가 추세에

있어서 대학생과 근로 청소년들의 음주빈도가 다른 층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40-50%의 청소년이 중학교 시절부터 음주를 경험하여 습관화된다는 점이 문제시되고 있다(Ahn, Kim & Choi, 2003).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학교를 통한 형식적인 교육과 일부 사회기관에서의 치료상담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만이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단위에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한 음주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음주에 대한 노출이 자연스러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Ahn, Kim & Choi 2003; Cho, 1999; Kim, 2000; Ko, 1995; Lee, Kim & Park, 1998; Lee, Lee & Jung, 1999; Yoon, 2000)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상대적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Kim, 1999; Kim et al, 2002; Lee, Lee & Kang, 1998)는 적은 편이며 대체로 실태조사나 사회환경적 영향요인, 정신증상을 보는 것에 그치고 있어 음주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친구 및 동료의 영향, 부모의 음주에 대한 태도, 성격 특성, 알코올 효과에 대한 기대,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대처양식, 학교생활, 흡연경험, 이성경험 등 다양한 변인들이 청소년의 음주강도 및 음주문제행동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왔다(Cho, 1999; Han & Han, 2001; Kim et al, 2002; Kam

* 본 연구는 2003년도 연세대학교 학술연구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교신저자 E-mail: iskwon1@hanmail.net)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지역사회 간호학 수련직

& Park, 1997; Newlin & Thomson, 1990). 이 중 특히 성격 요인은 지난 60여 년 동안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으나 주로 정신과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병리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졌다. 그러나 성격은 음주행동을 포함해서 광범위한 인간 행동의 개인차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비교적 안정적인 변인이며 성격차원들이 음주정도 및 음주문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Cho, 1999; Shin, 1998). 따라서 청소년의 음주문제행동과 관련된 변수를 확인하고 음주의 동기로서 그들만의 독특한 성격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은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그들의 생활을 그르치는 음주문제행동의 가능성을 가진 고위험 집단군을 예측하고 차후에 성격유형에 적합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교생의 음주실태와 음주관련요인이 음주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성격특성과 음주문제행동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 음주를 중재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격측정도구(Tridimensional Personality Questionnaire(TPQ))를 이용한 음주 청소년의 성격을 규명하고, 음주문제행동에 미치는 청소년의 성격요인 및 음주문제행동에 관련된 변수를 규명하고자 시도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청소년 음주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 2) 대상자의 음주관련 특성이 청소년의 음주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 3) 성격특성이 청소년의 음주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 4) 음주청소년의 음주문제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를 확인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음주문제행동

본 연구에서는 음주로 인한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개인의 평가도구로 청소년 약물사용과 남용을 포함한 10가지 영역에 걸쳐 문제행동을 측정하는 POSIT(Problem Oriented Screening Instrument for Teenagers) 도

구를 사용하였다. 총 139문항에서 청소년의 약물사용과 남용을 측정하는 17문항을 Latimer 등(1997)이 11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점수화 한 것을 말한다.

2) 성격특성

성격이란 유전 및 생물학적 경향성, 사회경험 그리고 변화하는 환경과 같은 다양한 내적, 외적 영향력에 따라 변화하는 진화적 과정으로 개인의 뚜렷한 독특성이 나타나며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어떤 사람의 특수한 자질(properties) 및 복합적 특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Cloninger(1991)가 제안한 3차원의 성격검사(TPQ) 도구를 Shin(1998)이 수정한 도구로 측정하여 점수화 한 것을 말한다.

3) 음주결과 기대

음주가 어떤 결과를 이끌 것이라는 개인의 평가로 본 연구에서는 Cho(1999)가 Goldman과 Christiansen(1987)이 개발한 청년용 음주결과 기대검사 척도를 기초로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음주에 대한 긍정적 기대 정도를 말한다.

4) 스트레스

청소년기의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지만 개인적인 요인, 대인관계나 환경적인 요인 등이 주된 스트레스원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Park(1988)이 제안한 도구를 Cho, Kwon과 Lee(1998)가 수정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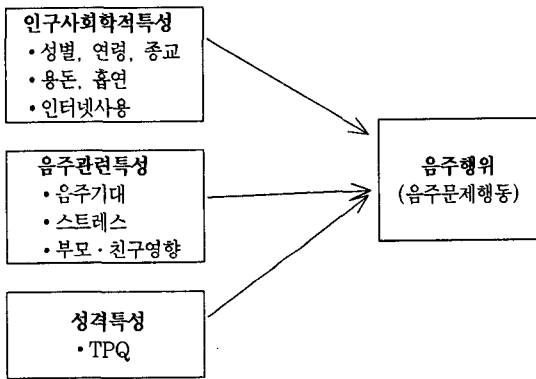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음주행위에 관한 요인을 확인하고 개인의 성격특성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횡단면적 상관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남녀공학 고등학교 1개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설문조사의 참여에 동의한 자이다.

3.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횡단면 조사연구로 서울시에 소재한 A 남녀공학 고등학교 1개교를 편의 추출하여 1,2,3학년 학생에게 수업 중에 연구자가 직접 연구목적을 설명하였다. 49개 학급 중에서 반 전체 학생이 설문문에 참여하겠다고 허락한 40개 학급 1,2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시간 제약 없이 스스로 응답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2002년 10월 5일부터 2002년 12월 20일까지 실시하였고, 불성실하게 응답된 설문지를 제외한 1,080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그림 1) 연구의 개념적 기틀

4. 연구도구

설문지 구성은 연구내용을 측정하는 변수와 기존의 조사도구를 참조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이 청소년에 맞는가에 대하여 간호학 교수 1인과 지역사회간호학 전공자 2인, 학교보건담당자 3인에게 검토를 의뢰하여 타당도를 높였고, 30명의 학생에게 예비조사를 한 후에 대상자에게 실시하였다.

1) 음주문제행동: POSIT(Problem Oriented Screening Instrument for Teenagers)

미국 약물남용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에 의해 개발된 청소년 약물사용과 남용을 포함한 10가지 영역에 걸쳐 문제행동을 측정하는 도구를 Latimer 등(1997)이 11문항으로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POSIT은 '예', '아니오'로 응답하며 '예'로 답한 경우 1점, '아니오'로 응답하면 0점이 주어진다. 총점 2점 이상이면 음주문제 경험한 문제성 음주자로 간주한다.

개발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 Kim (199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1$,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2$ 이었다.

2) 성격검사

Cloninger(1991)가 제안한 Tridimensional Personality Questionnaire(TPQ) 107문항을 Shin(1998)이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이분척도로 새로운 경험추구 15문항, 위해 회피 25문항, 보상의존성 6문항으로 각각의 성격차원을 반영하고 인격의 장애정도를 나타낸다. 각 문항은 '그렇다'고 응답한 문항을 1점, '아니다'로 응답하면 0점이 주어진다. 수정한 도구 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새로운 경험추구 Cronbach's $\alpha = .85$, 위해회피 Cronbach's $\alpha = .87$, 보상의존성 Cronbach's $\alpha = .76$, Cho(1999)의 연구에서는 새로운 경험추구 Cronbach's $\alpha = .76$, 위해회피 Cronbach's $\alpha = .79$, 보상의존성 Cronbach's $\alpha = .78$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경험추구 Cronbach's $\alpha = .76$, 위해회피 Cronbach's $\alpha = .82$, 보상의존성 Cronbach's $\alpha = .68$ 이었다.

3) 음주기대

음주기대는 음주가 어떤 결과를 이끌 것이라는 개인의 평가로 본 연구에서는 Cho(1999)가 Goldman과 Christiansen(1987)이 개발한 청소년용 음주결과 기대 검사 척도를 기초로 긍정적인 기대만을 선별하여 수정 보완한 16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분 척도로 '그렇다'에 응답하면 1점, '아니다'에 응답하면 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 기대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Cho(1999)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6$,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1$ 이었다.

4) 스트레스

스트레스의 측정은 Park(1988)이 제안한 도구를 Cho, Kwon과 Lee(1998)가 수정한 39문항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는 학업에 관한 스트레스 10문항, 가정에서의 스트레스 10문항, 교우관계에서의 스트레스 9문항, 이성 및 기타 스트레스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도구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 Cho, Kwon과 Lee(199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1$,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 였다.

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5.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Windows 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음주관련 특성, 성격 특성 및 음주문제행동 실태는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음주관련 특성 및 성격 특성에 따른 음주문제행동의 차이는 χ^2 -test, Independent t-test 분석을 하였다.
- 3) 대상자의 음주문제행동 예측변수들 간의 관계는 로지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특성을 인구사회학적 특성, 음주관련 특성 및 성격 특성의 3가지 범주로 살펴보았으며 결과는 <표 1>과 같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320명(29.7%), 여학생이 759명(70.3%)으로 나타났고, 학년은 1학년, 2학년, 3

<Table 1> Subject's characteristics

N=1,080

Characteristics	Division	N(%)*	Mean±SD
Sex	Male	320(29.7)	
	Female	759(70.3)	
Grade	1	508(47.1)	
	2	445(41.2)	
	3	126(11.7)	
Religion	Protestant	454(42.0)	
	Buddhism	130(12.0)	
	Catholicism	110(10.2)	
	Others	9(0.9)	
Circle	None	377(34.9)	
	To be	192(17.9)	
Monthly Pocket money	Without	879(82.1)	
	<50,000 won	421(39.2)	
	≥50,000 and <100,000	391(36.4)	
	≥100,000 and <150,000	166(15.5)	
	≥150,000 and <200,000	51(4.7)	
Smoking	≥200,000 won	45(4.2)	
	Yes	123(11.4)	
Daily internet using time	No	954(88.6)	
	≤1hour	417(38.8)	2.29±1.78
	2-5 hours	613(56.9)	
Father's drinking	≥6hours	46(4.3)	
	Yes	845(79.8)	
Mother's drinking	No	214(20.2)	
	Yes	579(54.3)	
Friend's drinking	No	488(45.7)	
	Yes	700(65.6)	
Alcohol expectancy Level of stress	No	367(34.4)	
	Family-related		6.36±3.50
	Friend-related		35.08±6.36
	Schoolwork-related		31.60±5.68
Etc			35.58±6.64
			30.68±7.25

* 무응답 제외

학년이 각각 508명(47.1%), 445명(41.2%), 126명(11.7%)이었다. 종교는 기독교(42.0%), 불교(12.0%) 순이며 종교가 없는 경우도 34.9%로 높게 나타났다. 써클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이 879명(82.1%)이었고, 용돈 수준은 월 10만원 미만인 75.6%를 나타내었으며 20만원 이상의 경우도 4.2%를 차지하였다. 대상자의 흡연상태를 살펴본 결과 현재 흡연하는 경우는 123명(11.4%)이었고 954명(88.6%)은 피우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일일 인터넷 사용시간은 최소 0시간에서 최대 12시간으로 평균 2.29시간을 나타내었다(표 1).

2) 대상자의 음주관련 특성

대상자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음주한 경우는 584명

(54.1%)이었으며 이 중 3개월에 1-2회 음주하는 경우가 25.9%, 월 1-3회 음주하는 경우가 20.5%, 주 1-4회 음주하는 경우가 6.8%로 나타났으며 거의 매일 술을 마시는 경우도 8명(0.7%)이었다. 대상자의 아버지가 술을 마시는 경우가 845명(79.8%), 어머니가 술을 마시는 경우가 579명(54.3%)로 가장 많았고, 술마시는 친구가 있는 경우는 700명(65.6%)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음주에 대한 기대감은 응답범위가 0점에서 최대 16점이었고, 평균 6.36±3.50점 정도의 음주상황이나 음주 후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스트레스의 경우 응답범위 39-195점에 대해 평균 132.79±20.70점의 스트레스 정도를 나타내었다(표 1).

<Table 2> Group differences of problem drinking behavior according subject's characteristics

N=1,080

Characteristics	Division	Problem drinking behavior		x ² or t	p-value
		Yes(N=410)*	No(N=634)*		
		N(%) or Mean±SD	N(%) or Mean±SD		
Sex	Male	129(41.9)	179(58.1)	1.213	.271
	Female	281(38.2)	454(61.8)		
Grade	1	155(32.0)	330(68.0)	24.594	.000
	2	208(47.9)	226(52.1)		
	3	47(37.9)	77(62.1)		
Religion	Protestant	184(41.8)	256(58.2)	5.574	.124
	Buddhism	47(38.5)	75(61.5)		
	Catholicism	47(45.2)	57(54.8)		
	Others or none	132(34.9)	246(65.1)		
Circle	To be	72(38.9)	113(61.1)	0.024	.878
	Without	336(39.5)	514(60.5)		
Monthly pocket money	<50,000 won	100(24.8)	304(75.2)	68.829	.000
	≥50,000 and <100,000	164(43.3)	215(56.7)		
	≥100,000 and <150,000	89(54.9)	73(45.1)		
	≥150,000 and <200,000	26(53.1)	23(46.9)		
	≥200,000 won	28(62.2)	17(37.8)		
Smoking	Yes	104(85.2)	18(14.8)	122.983	.000
	No	304(33.1)	615(66.9)		
Daily internet using time		2.56±1.92	2.13±1.68	-3.806	.000
Father's drinking	Yes	327(39.8)	495(60.2)	0.703	.402
	No	75(36.6)	130(63.4)		
Mother's drinking	Yes	233(41.5)	328(58.5)	2.422	.120
	No	174(36.8)	299(63.2)		
Friend's drinking	Yes	367(53.0)	325(47.0)	163.225	.000
	No	40(11.7)	301(88.3)		
Alcohol expectancy		8.11±3.03	5.27±3.33	-14.154	.000
Level of stress	Family-related	35.58±6.50	34.75±6.27	-2.067	.039
	Friend-related	31.61±5.99	31.60±5.54	-0.037	.970
	Schoolwork-related	35.21±6.93	35.84±6.50	1.485	.138
	Etc	31.85±7.21	30.01±7.25	-4.012	.000

* 무응답 제외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음주문제행동 차이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음주문제행동 차이

학년별 음주문제행동 차이를 분석한 결과 2학년의 경우 다른 학년에 비해 음주문제행동군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으며($p < .001$), 월 용돈수준이 증가할수록 음주문제행동군의 비율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 < .001$). 대상자의 흡연상태에 따른 음주문제행동 차이는 흡연군이 비흡연군에 비해 음주문제행동군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p < .001$). 일일 인터넷 사용시간은 음주문제행동군의 2.56±1.92로 음주문제행동이 없는 군에 비해 유의하게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이외 성별, 종교, 써클활동 유무에 따른 음주문제행동은 분석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2).

2) 음주관련 특성에 따른 음주문제행동 차이

대상자의 가족과 친구의 음주여부에 따른 음주문제행동 차이를 살펴보면 친구가 음주하는 경우 음주문제행동군의 비율이 53.0%로 친구가 음주하지 않는 경우의 11.7%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p < .001$), 가족인 아버지나 어머니의 음주여부는 대상자의 음주문제행동 정도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문제행동군의 음주기대는 평균 8.11±3.03로 음주문제행동이 없는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 < .001$).

스트레스는 음주문제행동의 유무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정관련, 교우관계, 학업 및 기타 스트레스 등 4가지 하위영역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가정관련 스트레스와 기타 스트레스가 음주문제행동군에서 유의하게 더 높았다($p < .05$) (표 2).

3) 성격 특성에 따른 음주문제행동 차이

성격 특성의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한 후 대상자의 성격 특성에 따른 음주문제행동 차이를 분석하였다(표 3). 성격 특성 중 새로운 경험추구 영역은 음주문제행동이

없는 군의 7.79±3.47에 비해 음주문제행동군이 9.12±3.22로 유의하게 높았다($p < .001$). 보상의존성 영역에서도 음주문제행동군이 3.61±1.74, 음주문제행동이 없는 군은 3.22±1.82로 유의하게 높았다($p < .001$). 한편 위해회피 영역은 음주문제행동 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성격 특성과 음주문제행동의 관계

대상자의 성격 특성을 비롯한 예측변수들과 음주문제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음주관련 특성을 통제한 후 세 개의 모형을 제시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모형 1은 성격 특성과 음주문제행동만을 변수로 하여 관련성을 살펴본 모형이다. 모형 2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후 성격 특성과 음주문제행동의 관계를 분석한 모형이며, 모형 3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음주관련 특성을 통제한 후 성격 특성과 음주문제행동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통제변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음주관련 특성에 따른 음주문제행동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를 위주로 선택하였고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변수는 제외하였다.

모형 1에서는 새로운 경험추구 성향이 높을수록 음주문제행동 위험이 1.12배 높았고($P < .001$), 보상의존성 성향이 높을수록 음주문제행동 위험이 1.08배 높았으나($P < .05$), 위해회피 영역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모형 2를 보면,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새로운 경험추구 영역은 성향이 증가할수록 음주문제행동 위험이 1.08배로 높았으나($p < .05$), 보상의존성 영역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학년이 높을수록 음주문제행동 위험이 1.38배 높았고($p < .05$), 용돈수준이 증가할수록 음주문제행동 위험이 1.43배 높았으며($p < .001$), 비흡연군에 비해 흡연군의 음주문제행동 위험이 8.94배

(Table 3) Group differences of problem drinking behavior according personality type N=1,080

Characteristics	Problem drinking behavior		t	p-value
	Yes(N=410)*	No(N=634)*		
	Mean±SD	Mean±SD		
Personality of novelty seeking	9.12±3.22	7.79±3.47	-6.334	.000
Personality of harm avoidance	13.51±5.33	13.97±5.14	1.386	.166
Personality of reward dependence	3.61±1.74	3.22±1.82	-3.466	.001

* 무응답 제외

<Table 4> Related factors to problem drinking behavior

N=1,080

	Model 1		Model 2		Model 3	
	OR ¹⁾	95% C.I. ²⁾	OR	95% C.I.	OR	95% C.I.
Personality type						
personality of novelty seeking	1.12**	1.07-1.16	1.08**	1.04- 1.13	1.07*	1.02-1.12
personality of harm avoidance	0.99	0.96-1.01	1.01	0.98- 1.03	1.02	0.99-1.05
personality of reward dependence	1.08*	1.01-1.16	1.07	0.99- 1.16	0.99	0.91-1.10
Sex						
female			1.00		1.00	
male			0.83	0.60- 1.15	0.73	0.50-1.06
Grade			1.38*	1.13- 1.70	1.08	0.86-1.37
Religion						
yes			1.00		1.00	
no			0.65*	0.49- 0.88	0.57*	0.41-0.80
Monthly pocket money			1.43**	1.24- 1.64	1.22*	1.05-1.43
Smoking						
no			1.00		1.00	
yes			8.94**	5.17-15.44	5.06**	2.82-9.09
Daily internet using time			1.11*	1.03- 1.21	1.08	0.99-1.19
Mother's drinking						
no					1.00	
yes					1.21	0.87-1.67
Friend's drinking						
no					1.00	
yes					5.31**	3.54-7.99
Alcohol expectancy					1.26**	1.19-1.33
Stress					0.99	0.99-1.01
-2Log Likelihood		1353.731		1178.046		971.985

*p<.05, **p<.001 1) Odd Ratio 2) Confidence Interval 무응답 제외

로 매우 높았다(p<.001). 종교의 경우 종교가 없는 군이 있는 군에 비해 음주문제행동 위험이 0.65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모형 3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음주관련 특성을 통제하였을 때 새로운 경험 추구 경향이 높을수록 음주문제행동 위험이 1.07배 높게 나타났으나(p<.05) 나머지 성격 특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흡연군이 비흡연군에 비해 음주문제행동 위험이 5.06배 높게 나타났으며(p<.001), 모형 2에서 유의하였던 일일 인터넷 사용시간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친구가 음주하는 군이 안하는 군에 비해 음주문제행동 위험이 5.31배 높았으며(p<.001), 음주기대가 높을수록 음주문제행동 위험이 1.2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IV. 논 의

1. 대상자의 특성과 음주문제행동

본 연구대상자의 최근 3개월 이내 음주경험은 53.7%로 선행연구(Han & Han, 2001)에서 고교 남학생의 46.3%, 여학생의 51.3%가 현재 술을 마시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2학년의 경우, 월 용돈수준이 증가할수록, 흡연하는 군에서 음주문제행동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음주문제행동군의 일일 인터넷 사용시간도 음주문제행동이 없는 군보다 더 많았다. 이는 고등학교 1,2학년생들에서 흡연과 음주 모두를 하고 있는 학생군의 일상생활에서 문제행동 경험이 높았고 1학년보다는 2학년에서 문제행동이 높게 나타난 Kam과 Park(1997)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가정문제, 학업문제, 대인문제, 금전문제 등의 일상생활에서의 문제행동을 측정 한 점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일탈의 가능성을 가진 문제행동이라는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습관적이고 과도한 인터넷 사용도 증폭 될 가능성이 있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Griffiths, 1999; Young, 199)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음주, 흡연,

그리고 과도한 인터넷 사용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부모는 자녀의 삶에 강하게 영향을 주므로 부모가 음주하는 것을 접하였을 때 그와 관련된 행동이 강화되어 자녀에게 영향을 주며(Elaine & Johnson, 1989), 또한 친구의 문제행동에 대한 승인은 모델링이 되어 문제행동 할 것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준다(Jessor, Donovan & Costa, 1991)는 주장과 비교하여 볼 때, 본 연구는 친구가 음주하는 경우 음주문제행동군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은 점은 일치하나, 아버지나 어머니의 음주여부는 대상자의 음주문제행동 정도와 관련성이 없었다. 선행된 고등학생의 음주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흡연경험, 음주친구, 성격험, 귀가시간 등의 요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Han과 Han(2001)의 보고와 유사하였으며, 친구의 음주행위, 친구의 음주태도, 친구사이의 음주규범, 친구사이의 인기도 등이 청소년의 음주행위를 예측하는 변인(Ahn, 1996)이라는 보고와도 일치되고 있다. 그러나 부모의 음주여부에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Lee, 1997)와는 상이하여, 일반 청소년의 부모와 음주행동 관련요인을 지속적으로 규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음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는 음주문제행동이 있는 군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성격 특성의 3가지 영역 중 새로운 경험추구 영역과 보상의존성 영역이 대상자의 음주문제행동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는데, 음주기대가 새로운 경험추구영역과 보상의존성영역에 의해 의미있는 영향을 받고 있고(Cho, 1999), 새로운 경험 추구 성향이 높은 사람이 술을 완전히 끊을 수 없다는 보고(Cloninger, 1987)와 관련지어 볼 때 음주기대와 성격요인이 음주문제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예측요인임을 알 수 있다.

2. 고교생의 음주문제행동 예측 요인

고교생 음주문제행동의 위험요인으로는 성격 특성, 흡연여부, 친구의 음주여부, 종교여부, 음주기대 등이 확인되었다. 술과 담배는 그 자체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의 음주와 흡연은 일탈행위로 습관성 약물남용 문제를 야기하는 관문(gateway drug)의 역할을 하며 청소년 비행의 선행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Kim, 1991) 문제성 건강행위를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대상자의 3가지 성격 특성 중 새로운 경험추구 영역과 보상의존성 영역이 음주문제행동과 유의한 관련

성이 있었으나, 다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음주관련 특성을 통제한 후 음주문제행동을 설명하는 모형을 구한 결과, 새로운 경험추구 영역이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새로운 경험추구 차원의 성격은 주로 충동성, 반사회성 같은 행동 통제의 부족을 반영해 주는 성격특성으로 지금까지의 여러 연구(Cho, 1999; Cox, 1987; Shin, 1998)에서 알코올 중독이나 음주문제의 성격적 위험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본 연구의 결과도 행동 통제의 부족이 음주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성격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경험추구성향이 높은 성격 소지자는 음주상황이나 음주 후의 행동 통제력이 부족하여 여러 가지 음주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 음주를 중재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하여 음주 청소년의 성격을 규명하고, 음주문제행동에 미치는 청소년의 성격요인 및 음주문제행동에 관련된 변수를 규명하고자 시도되었으며 연구대상자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1개 남녀공학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080명으로 자료수집 기간은 2002년 10월 5일부터 2002년 12월 20일까지이었다.

연구도구는 미국 약물남용연구소에 의해 개발되고 Latimer등(1997)이 재구성한 음주문제행동 측정 도구, Cloninger(1991)가 제안하고 Shin(1998)이 수정한 성격특성 측정 도구, Christiansen과 Goldman(1987)이 개발하고 Cho(1999)가 수정한 음주기대 측정 도구, Park(1988)이 제안하고 Cho, Kwon 과 Lee(1998)가 수정한 스트레스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χ^2 -test, Independent t-test,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음주한 경우는 584명(54.1%)이었다. 아버지의 음주율은 79.8%, 어머니의 음주율은 54.3%였으며 친구가 술을 마시는 경우는 65.6%이었다. 음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는 응답범위 0-16점에 대해 평균 6.36점 이었고, 스트레스는 응답범위 39-195점에 대해 평균 132.79점을

나타내었다.

-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음주문제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음주문제행동군에서 2학년의 경우 다른 학년에 비해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으며($p < .001$), 월 용돈수준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고($p < .001$), 흡연군이 비흡연군에 비해 더 유의하게 높았다($p < .001$). 일일 인터넷 사용시간도 음주문제행동군에서 사용시간이 유의하게 많았다($p < .001$). 친구가 음주하는 경우도 음주문제행동군이 유의하게 많았다($p < .001$), 아버지나 어머니의 음주여부는 음주문제행동 정도와 관련성이 없게 나타났다. 음주기대도 음주문제행동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 < .001$). 스트레스는 음주문제행동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4개 하위영역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가정관련 스트레스와 기타 스트레스가 음주문제행동군에서 더 높았다($p < .05$). 성격 특성 중 새로운 경험추구와 보상의존성의 2개영역이 음주문제행동이 없는 군에서 보다 음주문제행동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 < .001$).
- 3)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음주관련 특성을 통제하였을 때 새로운 경험추구 경향이 높을수록 음주문제행동 위험이 1.07배 높았고($p < .05$), 나머지 성격 특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흡연군이 비흡연군에 비해 음주문제행동 위험이 5.06배 높았고($p < .001$), 친구가 음주하는 군이 안하는 군에 비해 음주문제행동 위험이 5.31배 높았으며($p < .001$), 음주기대가 높을수록 음주문제행동 위험이 1.2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2. 제언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음주 프로그램의 연구와 교육시 다음을 고려할 것을 제언한다.

- 1) 청소년의 음주문제행동은 흡연 및 인터넷 과다사용 등 부정적 건강행위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건강문제의 예방 및 관리가 포함된 프로그램을 연구 및 계획이 필요하다.
- 2) 개인의 성격유형에 따른 음주문제행동과의 관계를 고려한 음주프로그램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 3) 실무에서 적용 시 음주문제행동은 친구의 영향이 크므로 개인중심보다는 그룹중심으로 운영하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교우관계 개선을 위하여 놀이를 통한 동기유발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개발되어야 한다.

야 한다.

References

- Ahn, J. S., Kim, H. K., & Choi, E. S. (2003). Factors Influencing the Alcohol Consumption Behavior of Adolescents. *The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14(1), 55-65.
- Ahn, K. S. (1996). *A study on the influence of parents and friends to the drinking behavior and drinking expectation of adolescents*. Master's thesis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 Cho, H. (1999). *Developing a predictive model for alcohol consumption behavior among Korean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of Nursing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 Cho, W. J., Kwon, I. S., & Lee, H. J. (1998). A Study on the Eating Habits and Stress of Female High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11(2), 285-295.
- Choi, J. A. (1997). *Analysis on factors relating to adolescents drinking*. Master's thesis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 Cloninger, C. R. (1987). Neurogenetic adaptive mechanism in alcoholism. *Science*, 236, 410-416.
- Cloninger, C. R., & Przybeck, T. R. (1991). The Tridimensional Personality Questionnaire. U.S. normative data. *Psychological Reports*, 69, 1047-1057.
- Cox, W. M. (1987). *Treatment and prevention of alcohol problems*. A resource manual. Orlando, Florida. Academic Press. Inc.
- Elaine, M., & Johnson (1989). Prevention Plus II-Tools for creating and sustaining Drug-Free communities. *DHHS Publication*, 17-34.
- Goldman, M. S., Brown, S. A., & Christiansen B. A. (1987). Expectancy Theory: Thinking

- about Drinking, In. Blane H.T. and Leonard K E, eds. *Psychological Theory of Drinking and Alcoholism*. New York Guilford Press, 181-226.
- Griffiths, M. (1999). Internet Addiction. *The Psychologist*, 12(5), 246-250.
- Han, S. H., & Han, D. W. (2001). The Related Factors of Alcohol Drinking in Korean Young Adults. *The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Association*, 27(2), 130-143.
- Jessor, Donovan, & Costa. (1991). *Problem - Behavior Theory and Young Adulthood, Beyond Adolesc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ung, J. I. (1999). *A study on Construction of Violence Prediction Model in Adolescents*. Doctoral Dissertation of Nursing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 Kam, S., & Park, J. Y. (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drinking and smoking behavior and delinquent behaviors of male adolescents in Taegu C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1(2), July, 157-168.
- Kim, H. S. (1991).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among a adolescents drug abuse and problem behavior pattern.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4(1), 88-99.
- Kim, J. H., et al. (2002). A Study on The Factors that Influence Alcohol Consumption among the Korean High School Girls in a Region of Seoul, Korea. *The Journal of Korean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11(1), 98-108.
- Kim, Y. S.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Coping Motives for Drinking and Drinking Behavior among College Students. *Mental Health & Social Work*. 9, 5-23
- Ko, Y. T. (1995). The alcohole use and consciousness of the woman university students. *Thesis collection of Duksung Women's University*. 24, 327-338.
- Latimer, W. W., Winters, K. C., & Stinchfield R. D. (1997). Screening for drug abuse among adolescents in clinica and correctional settings using the Problem-Oriented Screening Instrumentation for Teenagers. *American Journal of Drug and Alcohol Abuse*, 23(1), 79-98.
- Lee, C. I., Kim, H. R., & Park, D. K.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rinking pattern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and the bio-psychosocial factor. *The Journal of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37(5), 840-855.
- Lee, M. H., Lee, Y. J., & Jeong, H. S. (1999). Alcoholic Disorder and Mental Health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8(1), 97-107.
- Lee, Y. L. (1997). *A study of the drinking behavior of delinquents*. Master's thesis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 Lee, Y. S., Lee, H. L., & Kang, Y. J. (1998). Smoking, alcohol and other drug use in Korean adolescents.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Family Medicine*, 19(1), 43-56.
- Newlin, D. B., & Thomson, J. B. (1990). Alcohol challenge with sons of alcoholics: A critical review and analysi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108, 383-402.
- Park, G. L. (1988). *A study on the stress and the complaint of the menstruation of the Girls high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of Graduate School of Public School of Yonsei University.
- Shin, H. W. (1998). *The Effect of Personality and Drinking Motives on Drinking Problems*. Doctoral Dissertation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 Yoon, H. M. (1998). *Adolescents drinking and drinking prevention program*. Korea Alcohol & Liquor Industry Association.
- Yoon, H. M. (2000). Drinking Behavior and

Factors That Influence Alcohol Use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sis collection of Science-Life, vol 3*, 1-15.

Young, K. S. (1996).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Paper presented at the 104th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ugust 16, Toronto, Canada

- Abstract -

Relationship between Problematic Drinking Behavior and the Personalities of High School Students

Cho, Won Jung* · Kwon, In Sook**
Kim, Gwang Suk*** · Seo, Ku Min***

Purpose: This study intended to identify personality factors and related problematic behaviors of adolescents who drink alcohol in order to provide basic data for developing nursing programs.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to December 2002 from 1,080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The Revised Cloninger's Tri-dimensional Personality Questionnaire (TPQ) was used to measure their personalities. The alcohol expectancy was measured using the tool revised by Cho (1999) and stress levels were measure using a stress tool revised Cho (1998). The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Windows using Chi square test, independent t-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1. The percentage of fathers who drank was 79.8%, mothers, 54.3%, and friends, 54.3%. The alcohol expectancy averaged 6.36 while the stress levels were 132.79. 2. It

was found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p<.001$) in problematic drinking behaviors according to the following variables: second year high school students among all grade variables, more monthly pocket money for the amount of money variables, the group of students who smoked in the case of the variable related to smoking, spending more time using the Internet for the Internet use variable, and having friends who drink 65.6% for the friend variable. The alcohol expectancy scale of those students who showed problematic drinking behaviors was higher than that of those who did not. There are four family-related stress subscales, a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m ($p<.05$). Among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the group who displayed problematic drinking behaviors seeks new experiences and reward dependence more than the group who did not exhibit those behaviors,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p<.001$). 3. When the socio-demographic and drinking-related factors were controlled, the tendency of seeking new experiences increased the risk of problematic behaviors 1.07 times ($p<.05$). Compared to the non smoking group, the smoking group was found to have a 5.06 time ($p<.001$) greater risk of displaying problematic drinking behaviors. In comparison with the non drinking group, the drinking group was also found to have a 5.31 time ($p<.001$) greater risk of exhibiting problematic drinking behaviors. The group with high alcohol expectancy score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group with the no alcohol expectancy, showing a 1.26 time ($p<.001$) greater risk of problematic drinking behaviors. **Conclusions:** Based on these results, the problematic drinking

*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Professor

**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Graduate Student(Corresponding author)

***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Teaching Assistant

behaviors were connected with alcohol expectancies, friends and personality types. Therefore, we should develop an alcoholic prevention program for adolescence considering

the above results.

Key words : High school students, Problem drinking behavior, Personality